



2025년 1호
2025.04.25.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장창열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 파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 파면은 시작이다. 사회대전환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가 옳다

2025년 4월 4일(금) 오전11시, 거리에 울린 생중계 방송.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로 금속노조를 탄압해왔던 윤석열 정권은 막을 내렸다. 윤석열 파면 선고는 금속노조의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금속노조는 “조합비 회계공시, 타임오프 시정시지 행정개입”이 노동조합 내부를 분열시키고, 민주노조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금속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나리오라고 외쳐왔다. 윤석열 파면을 시작으로, 이 모든 악행은 윤석열과 함께 없어져야 한다.

자, 이제 시작이야!

“윤석열” 하나 없어진다고,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거대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상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담대하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몰아서 일하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주 52시간 상한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

다는 자본가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으로 주 52시간 상한선은 지켜냈지만,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주당 64시간까지 노동)를 결국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연장했다.

금투세 폐지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거대양당의 합작이다. 거대양당이 자본가 편인 이유다. 1886년 140년전 ‘8시간 노동’을 외치고, ‘노동운동탄압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던 노동자들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고, 여당도 바뀌고, 국회의원이 달라져도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 중심의 체제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거대양당의 싸움이 뒤에서 조종하는 자본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새 정부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다가올 2025년 대선시기에 금속노조는 거리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우리의 요구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대선 정치투쟁, 임금단체교섭 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관통할만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수구 보수 세력을 청산함과 동시에, 7월 총과업을 통해 거침없이 해내야 한다.

금속노동자가 산업을 멈출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실효성 없는 노조 의견수렴 수준을 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회계공시, 타임오프 감독 등 반노동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도 필요하다. 금속노조가 새 정부 임기 초반부터 큰 투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온전한 노조법 2·3조!
모두의 노조할 권리!
노동법 개정!
2025 세계노동절대회

5월1일(목) 오후 전국동시대발
 • 중앙대회(수도권) 14:30 송례문

서울-인천-경기 14:30 세종대로 송례문 앞
충남 11:00 천안터미널
강원 14:00 남춘천역
충북 14:00 충북도청 인근
대전 11:00 대전시청 남문
전북 14:00 전주객사 앞
광주 14:00 광주광역시청 앞
전남 14:00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뒷편
대구 15:00 국제보상로 공평네거리
경북 14:00 포항 협력화관 앞
울산 14:00 남구 변영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경남 14:30 창원 최윤덕 장군상
부산 14:00 전포대로
제주 10:00 제주시청

민주노총 2025 노동절 핵심 요구

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5인미만 및 초단시간 노동자 근기법 전면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및 헌법 노동3권 실질화 ▲초기업교섭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근기법과 사회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산재법 전면 적용

② 사회공공성 강화

▲윤석열표 감세 원상회복 및 누진적 보편증세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한 공공 돌봄체계 마련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③ 사회대개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공공 재생에너지 신속 전환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소환제 도입 ▲재벌·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경제민주화

토막 상식

첫 세계노동절 투쟁은 1890년 5월 1일이다. 미국에서 1886년 5월 1일부터 '하루 8시간 노동'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날을 기려 국제단체인 제2인터내셔널이 1890년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시위·투쟁의 날'로 정했다. 그 날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동시에 '1일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한국의 노동절 역사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한 일본 독점 자본들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들은 1920년부터 노동절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 노동절 기념식을 하지 못하면 동맹파업이나 시위, 행진, 강연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노동절을 치렀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1948) 이후엔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이 노동절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이승만이 총재인 대한노총은 대한노총 설립일인 3월 10일에 제1회 노동절 기념대회(1959년)를 진행하며 노동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1970년 전태일의 죽음 이후 민주노조운동이 다시금 성장했고, 1985년 5월 1일 노동자 학생 300여명이 서울 영등포시장로터리에 모여 '노동운동탄압 중지,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노동절을 기념했다. 1988년에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노동3권 쟁취 수도권 노동자대회'가 공개적으로 열렸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속에도 노동자들은 세계 노동절의 정신을 이어 받고자 했던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외투기업의 착취에 맞서 고용승계를 외치며 500일이 넘도록 불탄 공장 옥상을 지키는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한화자본에 맞서 CCTV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동지들이 있다. 노동절의 정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아 실천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함께 불러요 (인터내셔널가)

(1절)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상을 펼칠 때 /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후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2절) 어떠한 높으신 양반 고귀한 이념도 / 허공에 맴돌아 십자가도 우릴 구원 못하네 /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강철 같은 우리 손 /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해방으로 나가자 (후렴반복)

(3절) 역세고 못박힌 두 손 우리의 무기다 / 나약한 노예의 근성 모두 쓸어 버리자 /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 우리의 붉은 새 태양은 지평선에 떠오른다 (후렴 반복)